

한 살인사건에 관한 보고되지 않은 조서

정지우 감독의 〈해피엔드〉

김경욱 | 소설가

최근 내부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최보라(여, 영어회화 학원장) 살인사건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남아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당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보라의 정부(김일범)에 대한 혐의가 상당히 미비하며 오히려 최보라의 남편(서민기, 무직)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하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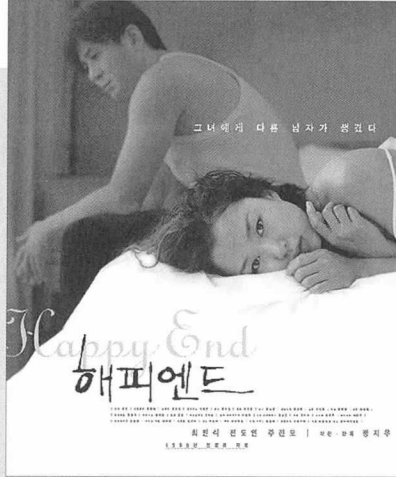
1. 사건개요

영어회화 학원을 운영하는 최보라는 자신의 아파트 침실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예리한 흉기로 수차례 흉부를 찔린 상태였다. 집안에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 점, 외부에서 강제로 집안으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방법의 잔인함으로 미뤄볼 때 단순강도가 아닌, 면식범에 의한 치정살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당초 수사팀에서는 침대에서 김일범의 체모가 발견됐고 김일범의 집 욕실에서 최보라의 혈흔이 채취됐으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이 발견됐다는 점을 주목해 그간 최보라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김일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기소했다. 현재 김일범은 첫 공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 몇 가지 의문점들

의문 하나 : 이 사건은 여러 정황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너무나 '명백하게' 김일범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침대 위의 체모와 김일범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최보라의 혈흔과 칼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한데도 당



전직 은행원이었던 서민기는 현책방에서 주로 연애소설을 읽거나 읽었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인가 추리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화제의 방화 〈해피엔드〉는 이같은 치밀한 복선을 깔아놓고 극을 전개해 나간다.

사자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치정살인의 경우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며 용의자들은 범행사실을 순순히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

의문 둘 : 범행장소가 석연치 않다. 평소 최보라와 김일범은 남편 서민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로 김일범의 오피스텔에서 밀회를 즐겼다. 그런데 남편이 지방에 내려간 때라고 하지만 아파트 이웃주민들의 이목을 끄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보라의 집에서 만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문 셋 : 사건 당일 침대에서 정사를 벌이다가 갑자기 예리한 칼로 수차례 찔려 잔인하게 최보라를 죽였다는 사실 또한 의아스럽다. 사건 당일 최보라 아파트 옆집 주민들은 그 어떤 다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요컨대 김일범에게는 살해동기가 부족하다. 만일 최보라가 변심해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다면 굳이 자신의 집까지 김일범을 끌어들여 정사를 나누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서민기의 행적에 대한 탐문 결과

최보라의 남편 서민기는 전직 은행원이었으나 직장을 잃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있었다. 몇 군데 직장을 알아보긴 했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최근에는 구직에 그다지 열을 올리지도 않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일과처럼 매일 현책방에 들렀다는 사실이다. 현책방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서민기는 주로 연애소설을 읽거나 구입했다.

서민기는 눈물나는 로맨스가 있는 연애소설을 즐겨 찾았다고 현책방 주인은 말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평소에는 거들며 보지도 않던 추리소설을 찾았다는 것이다. 연애소설과 추리소설, 대체 서민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단순히 연애소설이 지겨워져서 추리소설을 기웃거렸던 것일까. 아니다. 평소 서민기는 추리소설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직자와 현책방. 연애소설과 추리소설, 사건의 실마리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낙오된 서민기에게 현책방은 마음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이다. 그 평온한 안식처에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눈물나는 로맨스'를 꿈꾸며 지친 마음을 달랠 것이다. 그러던 서민기가 언제부터인가 추리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연애소설과 추리소설의 장르적 차이. 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책방. 현책방이란 무엇인가. 한때는 넓고 밝은 공간에서 다른 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버림받아 흘러들어온 공간이 아니던가. 그 비주류의 공간 속에서 상처입은(경제적 의미에서 거세된) 한 마리 수컷인 서민기는 연애소설을 읽으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로맨스를 꿈꿨던 것이다.

그렇다면 연애소설 마니아였던 그는 추리소설을 읽으며 무엇을 상상했을까. 혹시 바람 난 아내를 죽이는 완전범죄를 꿈꾼 것은 아닐까. 마치 연애소설과 추리소설이라는 이중의 장르교배로 멜로스틸러라는 잠종장르가 발생한 것처럼 말이다.●